

작년 저축은행 점포 25곳 문 닫았다… 감소폭 10년새 최대

금감원, 79개 저축은행 점포 234개
오케이 5곳, 한투·IBK 4곳씩 폐점
임직원도 271명 줄어 총 929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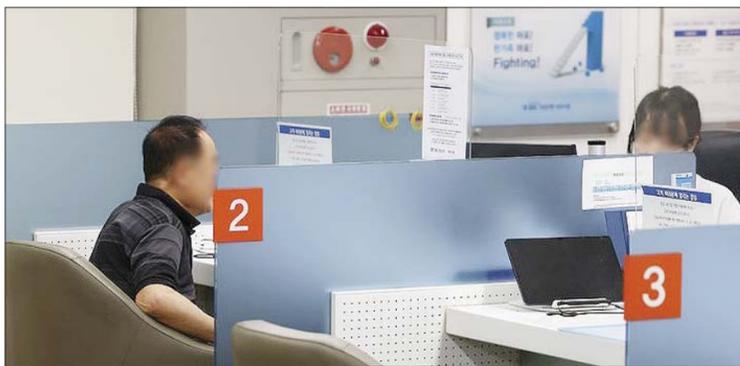
지난해 문을 닫은 저축은행 점포가 10년 만에 최대였다. 점포 축소 흐름이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그 속도 역시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총 점포 수는 23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연도(259개) 대비 25개 감소했다.

지난 2016년 이후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지난 2016~2020년 연간 한 자릿수에 머물던 저축은행 점포 축소가 2021년(-10개)과 2022년(-11개)을 기점으로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이어 2023년 -7개로 감소 추세가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2024년 -17개, 2025년 -25개를 기록했다.

79개 저축은행 중 점포 수를 가장 많이 줄인 곳은 오케이저축은행이다. 오케이저축은행은 지난해에만 5개 지점을 폐점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과 아이비케이(IBK)저축은행도 각각 4개



비대면 영입이 확대되면서 저축은행도 점포를 줄이고 있다. 한 은행 점포에서 시민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점포를 닫았다. 에스비아이(SBI)저축은행은 3개, 신한저축은행은 2개의 점포를 줄였다. 이어 ▲다올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에이치비(HB)저축은행 ▲동원제일저축은행 ▲엔에이치(NH)저축은행 ▲오뚜저축은행이 각각 1개 점포를 폐점했고, 비엔케이(BNK)저축은행은 1개 출장소를 줄였다.

대형 혹은 지주사 저축은행들이 본점만 남기고 지점 점포 수를 줄이고 있어서다. 실제 저축은행권의 점포 수는 지난 2020년 말 기준 195개에서 지난해

141개로 50개 이상 정리됐다. 점포 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임직원 수도 축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저축은행 전체 임직원은 929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9563명)과 비교해 보면 지난해에만 271명이 줄었다. 임직원이 1만 명이 넘었던 지난 2022년과 비교해 보면 3년새 총 1019명이 저축은행 업권을 떠났다.

업계에서는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흐름이란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신한저축은행은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갈

은 계열사인 신한은행과 손잡고 '신한상생 대환대출' 비대면 서비스를 상반기 중으로 선보인다. 저축은행의 고금리 차주와 신한은행의 저금리 상품을 비대면으로 연계해 주는 구조다.

웰컴저축은행도 최근 인공지능(AI) 금융버서를 출시하면서 비대면 금융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단순 음성 인식으로 고객이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권에도 비대면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새 바람이 불고 있는 추세"라며 "점포 하나를 내려면 임대료, 인건비가 발생하는데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면 그런 측면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서민 금융 접근성 축소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권의 주요 고객층은 5060이기 때문에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이 많다"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금융 공백이 커질 우려는 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카드 News

현대카드 디지털 아트 독일 체트카엠에 전시

현대카드는 자사의 디지털 아트 플랫폼 '현대카드 모마(MoMA) 디지털 월'에서 소개된 작품 '살아있는 시'가 독일의 미디어 아트 센터인 체트카엠(ZKM)에 전시된다고 30일 밝혔다.

살아있는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현대카드 디지털 월에서 전시됐던 작품으로, 인간의 상상력과 컴퓨터 알고리즘이 결합해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디지털 시를 구현한 작품이다. 미국의 인공지능(AI) 시각 예술가 '사사스타일스'가 제작했다.

ZKM은 뉴욕현대미술관에서 현대카드 디지털 월에 전시된 작품을 직접 확인한 뒤, 작가와 작품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이번 전시를 결정했다. 이번 전시는 현대카드의 디지털 월 프로젝트가 유럽까지 확대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삼성카드-넥센타이어 타이어렌탈 할인 카드

삼성카드는 30일 넥센타이어와 함께 '넥센타이어 삼성카드'를 선보였다.

넥센타이어 삼성카드는 타이어 구매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다. 넥센타이어의 타이어 렌탈 프로그램인 '넥스트레벨'과 연계해 렌탈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넥스트레벨 서비스 이용 시 이용 금액에 따라 월 최대 1만60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생활 밀착형 혜택도 마련했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이용 시 10% 할인 혜택을 월 최대 1만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스타벅스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커피빈 등의 커피전문점과 편의점 10% 할인 혜택을 최대 1만원까지 제공한다.

넥센타이어 삼성카드 혜택은 전월 30만원 이상 이용하면 받을 수 있으며, 카드 연회비는 국내 전용 및 해외 겸용(VISA) 모두 1만5000원이다.

KB국민카드, 고객추천 상품권·페이머니 증정

KB국민카드는 내달 17일까지 '응원합니다! 새학기 3가지 혜택'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행사 기간 KB국민카드로 5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50만원(5명) ▲신세계 상품권 20만원(10명) ▲신세계 상품권 10만원(20명) ▲신세계 상품권 5만원(300명) 등 총 335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같은 기간 KB페이(Pay)로 3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500명을 추첨해 KB 페이머니 3만원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테니스장, 수영장, 학원, 서점 등 자기계발 관련 업종에서 2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2000명을 추첨해 다이소 상품권 1만원을 지급한다. /안재선 기자

다음달 4만 가구 분양 붐물… 물량 절반 '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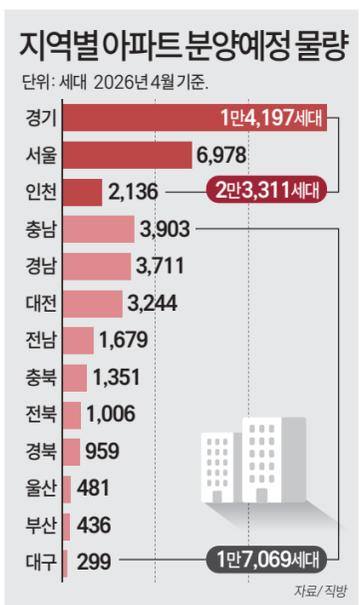
전년 동월대비 물량 2배 급증 수준
경기 1.4만 가구, 서울 6978가구 등

다음달 분양물량이 4만 가구를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를 맞은 데다 연초 예정된 물량이 일부 이월됐고, 오는 6월 지방선거 전에 분양 일정을 소화하려는 단지가 늘었다.

30일 지방에 따르면 4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총 4만380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배 급증한 수준이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물량 변동 가능성도 커졌다. 실제 3월 예정 물량도 일부 이월되면서 일정이 4월에 집중됐다. 당초 3월 분양계획 물량은 총 3만1012세대였지만 실제 분양은 1만8626세대에 그쳐 60% 가량만 소화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고분양가와 대출 규제 부담으로 청약 여건이 여전히 제한적인 가운데 주변 아파트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가 크면 시세차익 일부



를 환수하는 주택채권입찰제 도입 논의까지 더해지며 분양 시장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졌다"며 "일부 단지는 공급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어 계획 물량의

변동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분양예정 물량의 절반은 수도권이 차지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1만4197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6978세대 ▲인천 2136세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기 지역은 택지지구와 대단지 중심 공급이 이어지며 가장 많은 물량이 예정됐다. ▲양주시 옥정동 옥정중앙역디에트르(2807세대) ▲용인시 처인구 용인양지서희스타힐스하이뷰(1265세대) ▲성남시 분당구 더샵분당하이스트(1149세대) ▲광주시 경기광주역롯데캐슬시그니처1단지(1077세대) 등이다.

서울에서는 ▲성북구 장위동 장위푸르지오마크원(1931세대) ▲동작구 흑석동 씨더힐(1515세대) ▲동작구 노량진동 라클라체자이드파인(1499세대) ▲용산구 이촌동 이촌르엘(750세대)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정비사업 중심의 도심 내 공급이 이어지는 점이 특징이다.

인천에서는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 G5(1640세대), 남동구 구월동 힐스테이트구월아트파크(496세대)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충남 3903세대 ▲경남 3711세대 ▲대전 3244세대 ▲전남 1679세대 ▲충북 1351세대 ▲전북 1006세대 ▲경북 959세대 등이 분양 물량으로 잡혀있다.

지방에서는 ▲충남 천안시 업성푸르지오레이크시티(1460세대) ▲충북 청주시 청주푸르지오씨엘리체(1351세대) ▲경남 거제시 거제상동2지구센트레빌(1307세대)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방 관계자는 "최근 분양시장은 지역과 단지에 따라 온도 차가 나타나는 모습"이라며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누적되는 흐름이 이어지는 반면, 산업단지 조성이나 일자리 확대가 기대되는 지역에서는 수요가 유입되며 분양분위기가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보험사 수익성 악화… 당기순익 14.5% 줄어 12.2조

금감원, 2025 보험회사 경영실적
생보사 순익 11.8%, 손보사 16.2% ↓

지난해 보험사들이 보험료 수입을 크게 늘렸지만 정작 순이익은 두 자릿수 감소했다. 손실계약 증가와 예실차 손실, 손해를 상승이 보험손익을 끌어내리면서 외형 확대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모양새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지

난해 보험사당기순이익은 12조2172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673억원(14.5%) 감소했다. 생명보험사는 4조9680억원으로 6647억원(11.8%), 손해보험사는 7조2492억원으로 1조4026억원(16.2%) 각각 줄었다.

생보업계는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이 함께 악화됐다. 손실계약 증가와 예실차 손실 등으로 보험손익이 3527억원 줄었고, 보험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투자손익도 1255억원 감소했다.

손보업계는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를 상승 영향으로 보험손익이 2조6741억원 급감했다. 다만 이자·배당 증가로 투자손익이 1조1672억원 늘면서 일부 방어에 성공했다.

외형은 커졌다. 지난해 보험사 수입보험료는 266조6595억원으로 전년보다 26조6776억원(11.1%) 증가했다. 생보사는 보장성보험과 변액보험, 퇴직연금 판매가 늘어 12.4% 증가한 127조5061억원을 기록했다. 손보사도 장기

보험, 일반보험, 퇴직연금 판매 확대로 10.0% 증가한 139조1533억원을 거뒀다. 다만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는 1.7% 감소했다.

문제는 수익성이다. 지난해 보험사 전체 총자산이익률(ROA)은 0.94%로 전년보다 0.21%포인트(p) 하락했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7.86%로 1.35%포인트(p) 떨어졌다. 생보 ROA는 0.53%, 손보 ROA는 1.93%였고, ROE는 각각 5.39%, 11.47%로 집계됐다. 외형 성장에도 실제 수익창출력은 약해졌다는 의미다.

/김주형 기자 gh471@